

## 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-234호

「은행업감독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7월 26일

금융위원회

### 「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 규정변경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모니터링 비율로 운영해온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을 규제로 도입하여 대외불안 발생시 은행의 외환 부문 대응여력을 강화하고 실물부문에 대한 안정적인 외화자금 공급 기능을 확보하고자 함

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제, 실효성이 낮은 규제,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과 중복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

※ '16.6월 발표한 「은행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 규제도입 방안 (관계부처 합동)」을 규정화하는 내용임

#### 2. 주요내용

##### 가.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도입 (안 제63조의2)

은행이 대외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외환부문 대응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하도록 함

다만,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 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 함

나.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대체가능한 규제,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가능한 규제,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일괄 정비 (안 제64조의2 삭제, 안 제64조)

잔존만기 7일 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불일치 비율과 외화안전자산 보유 규제를 폐지

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적용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비율(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),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 불일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은행의 중복·불필요한 부담을 완화 함

다.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면제 (안 제68조)

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외화유동성 규제와 동일하게 외화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의 적용을 면제

라.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완화 및 면제(안 제92조, 안 제94조)

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100분의 20만큼 완화하여 적용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적용을 면제하고

## 마.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(안 제70조)

기존의 외화유동성 규제 위반과 동일하게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

### 3. 의견제출

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 : 금융시장분석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/지식마당/법령정보/규정변경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

(주소 :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)

- 전 화 : 02-2100-2852
- 팩 스 : 02-2100-2829
- 이메일 : hstae@korea.kr